

광주·전남에 155mm ‘물폭탄’…피해 속출

주말·휴일 市 28건·道 37건 신고
정전·교통사고 등…인명 피해 없어
이번 주 장맛비 내리고 그치길 반복

지난 주말·휴일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155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는 이번 주에 도 내리고 그치길 반복할 전망이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광주·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곡성이 155mm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영광 153.6mm ▲구례 151mm ▲광주 137.6mm ▲담양 137.5mm ▲나주 135.5mm 등의 순이었다.

시간 당 최대 강수량은 담양 47.5mm, 구례 42.5mm, 곡성 39.5mm, 광주 39.1mm, 나주 39mm 등으로 기록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광주·전남에선 정전·교통·침수 등 사고 및 피해 신고가 각각 28건·37건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 유형은 도로 물 고임·침수(배수 불량) 등이 32건(광주 27건·전남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안전조치 22건(전남), 나무 쓰러짐 10건(전남), 주택 용벽 우려 1건(광주) 등이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8시24분께 화순 한 도로에선 나무가 쓰러진 채 발견돼 소방 당국이 제거 등 조치에 나섰다.

전날 오후 12시1분께 남구 봉선동 소재 아파트 6곳·916세대에선 정전이 발생했다. 상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의해 57분 만에 종료됐으나,



제6회 광주 서구청장배 플로어볼 대회

제6회 광주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플로어볼 대회 참가자들이 22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플로어볼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하키로, 농구 코트보다 약간 넓은 플로어(floor)에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해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경기다.

/김애리 기자

승강기에 타고 있던 4명이 갇히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께 담양 광주-대구 고속도로(광주 방면)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맛비는 24일 오전부터 다시 내려 28일까지 이어지겠다. 이 기간 비는 내리고 그치길 반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30mm다. 양일 최저·최고기온은 19~26도, 19~28도 사이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

며 “비가 그친 뒤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온열질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은정 기자

광주 25.6도 등…지역 올해 첫 열대야

‘잠 못드는 밤’ 지난해보다 16일 더 빨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1분부터 20일 오전 6시20분까지 광주, 영광, 장성, 무안의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됨

에 따라 올해 첫 ‘열대야’로 기록됐다.

이 시간 동안 최저 기온은 ▲광주 25.6도 ▲영광 25.2도 ▲장성 25.1도 ▲무안 25도 등이었다.

광주는 올해 첫 열대야가 지난해(7월5일 발생)보다 16일 빨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밤 사이 일부 지역에 유입되면서 기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장은정 기자

市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속도 낸다

市·5개구에 교육행정직 15명 파견

보육 업무 매뉴얼 제작·협력 구축

광주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교육행정직 공무원 15명을 파견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파견은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견자는 각 자치체의 보육 행정 업무량과 어린이집, 기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 시 3명, 동·서·남구 각 2명, 북·광산구 각 3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유보통합 이후 시교육청이 맡

아야 할 보육 업무를 파악하고 이관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전반적인 보육 업무 파악 및 운영 체계 분석 ▲보육 업무 매뉴얼 제작 ▲보육 정책 개선사항 발굴 및 제도 제안 ▲교육청-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시교육청은 인력 파견을 통해 보육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파견은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전략적 준비 과정”이라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市교육청, 일반직 471명 정기인사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오는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명단 18명

인사 규모는 ▲승진 75명(4급 2명·5급 1명·6급 이하 72명) ▲전보 301명 ▲퇴직준비교육 및 정년퇴직 30명 ▲신규임용 32명 등 총 471명이다.

4급 승진 인사로는 총무과 총무담당 정광희 사무관을 전남대학교 교육협력관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화관 김정희 사무관을 중앙도서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5급은 시설과 박재형 주무관이 승진해 미래학교복합시설담당으로 이동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소통·실무 역량이

검증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인권·인성이 존중받는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신설되는 ‘인성생활교육과’와 광산구 지역의 숙원과제였던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 국가시책사업인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파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치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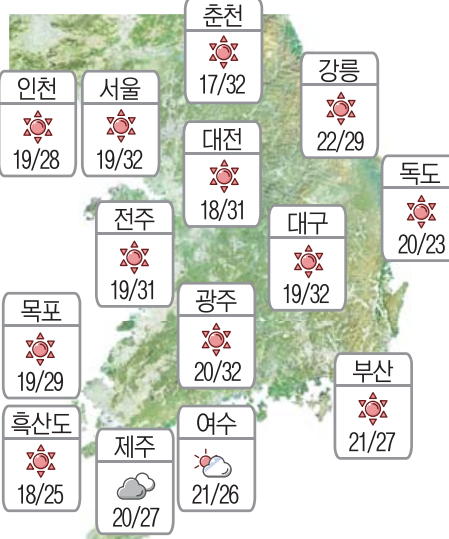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51 🌙달돋이 02:42 달질 17:45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20/32	장성	맑음	17/32
목포	맑음	19/29	보성	구름조금	17/28
여수	구름조금	21/26	함평	맑음	17/31
나주	맑음	18/31	순천	맑음	20/29
완도	구름조금	18/29	영광	맑음	18/31
구례	맑음	18/31	진도	구름조금	18/28
강진	구름조금	18/30	흑산도	맑음	18/25
해남	구름조금	18/29	고흥	구름조금	17/29
광양	맑음	20/30	담양	맑음	18/3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북)	0.5-1.0	0.5-1.0
남부	면바다(남)	0.5-1.5	0.5-1.5
	앞바다	0.5-1.0	0.5-1.0
남해	면바다(동)	0.5-1.5	0.5-1.5
	면바다(서)	0.5-1.5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1:49	05:24	여수	06:56	00:55	녹동	07:30	02:05
	--:--	17:27		19:47	13:00		20:27	13:54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24일(화)	25일(수)	26일(목)
☁(21/26) 흐려비	☀(21/28) 구름조금	☀(21/29) 구름조금
27일(금)	28일(토)	29일(일)
☁(22/29) 구름많음	☁(23/29) 구름많음	☁(23/30) 구름많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112년의 시간 그리고...

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매일 송정역전시장’ 이 시작되었습니다. 112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바꿨고, 누적된 시간이 많은 만큼,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율 휴무 - 매월 넷째주 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 산 구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

+